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탄자니아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23년 7월 14일 | 조사역(G3) 동은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945천 km ² (한반도의 약 4배)	인구 63.343백만명 (2023 ¹)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비동맹, 친서방 실리외교
GDP 854.21억 달러 (2023 ¹)	1인당GDP 1,348.55 달러 (2023 ¹)	통화단위 Tanzanian Shilling (실링)	환율(U\$기준) 2,314

- 아프리카 동남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한반도의 4.3배에 달하는 면적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모잠비크 등과 접경하고 있음.
- 대륙 본토인 탕가니카와 과거 오만의 지배로 이슬람 성격이 강한 잔지바르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지바르는 별도의 자치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음.
- 130여 개의 다양한 종족과 기독교, 이슬람교, 토착종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에도 종족 간 또는 종교 간 마찰이 적어 내란과 테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금, 니켈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더해 킬리만자로 산,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은 높은 편임.
-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일원으로 관세 동맹, 공동시장 설립 등을 통해 역내 평화 유지 및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역내 라이벌인 케냐와의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4. 30 수교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05),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5), 문화협정('06), 무상원조협정('14), 외교관/관용/공무사증면제협정('18년)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151,237	200,128	321,157	의약품, 합성수지, 섬유제품
수입	47,170	25,889	76,320	동괴 및 스크랩, 연초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23.3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38건, 13,179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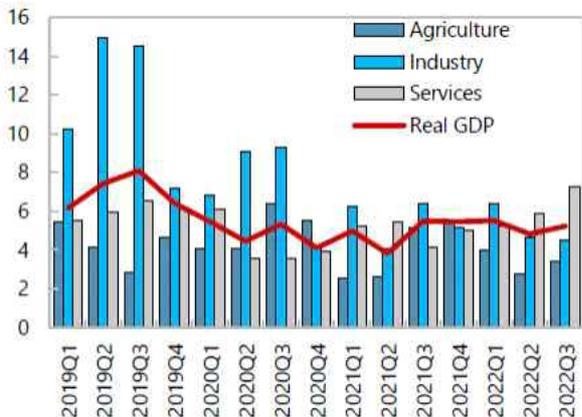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7.0	4.8	4.9	4.7	5.2
소비자물가상승률	3.4	3.3	3.7	4.4	4.9
재정수지/GDP	-2.0	-2.5	-3.4	-3.3	-2.9

자료: IMF, EIU

2022년 경제는 주요 산업이 고르게 성장에 기여하여 4.7% 성장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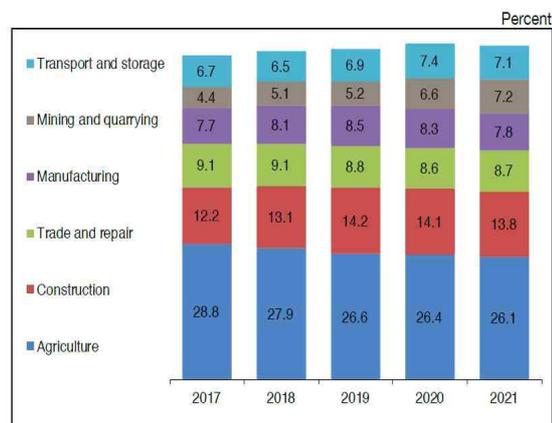
- 2022년 탄자니아 경제는 농업, 서비스업, 광업 등 주요 산업이 모두 고르게 성장한 결과 4.7%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농업)** 농업 부문은 2022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다만, 2023년 옥수수 작황 전망은 계속되는 가뭄과 높은 비료 가격 때문에 성장에 제약 받고 있음.
- **(서비스업)** 서비스 부문은 탄자니아 GDP의 약 42%를 차지하며, 2023~27년에는 무역 및 관광 활성화에 힘입어 활발한 성장이 전망됨.
- **(건설업)** 탄자니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국가경제에 대한 건설업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수준임. 2023년 탄자니아 건설 부문 성장률 전망치는 12.6%로, 여타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건설 부문 성장률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Fitch Solutions).
- **(광업)** 탄자니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제3위의 금 생산국으로, 금은 상품수출의 약 50%를 차지함.
-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기업환경과 지배구조를 포함한 당국의 구조개혁 의제 이행 여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중기적으로 약 7%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함.

[그림 1] 탄자니아 산업 및 경제성장률(2019-2022.3분기)



자료: IMF 보고서

[그림 2] 산업별 탄자니아 GDP 기여도(2017~21년)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Bank of Tanzania

국내경제

2023년에는 서비스 부문과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5%대의 경제성장 전망

- 무역과 관광 등 서비스 부문, 광업 및 인프라 투자가 2023년 말부터 2027년까지 탄자니아 경제성장의 점진적인 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됨.
- FitchSolutions는 2023년 탄자니아의 경제성장률을 5.7%로 전망함. 고정투자의 증가는 탄자니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출에 의해 주도될 것이며, 정부지출 증가와 인플레이션 완화는 민간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함.

[표 1] 주요 기관들의 2023~24년 탄자니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연도/기관	IMF	세계은행	FitchSolutions	EIU	IHS Markit
2023년	5.2	5.3	5.7	5.1	4.7
2024년	6.2	6.1	5.4	6.2	5.4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목표치(5%) 이내를 유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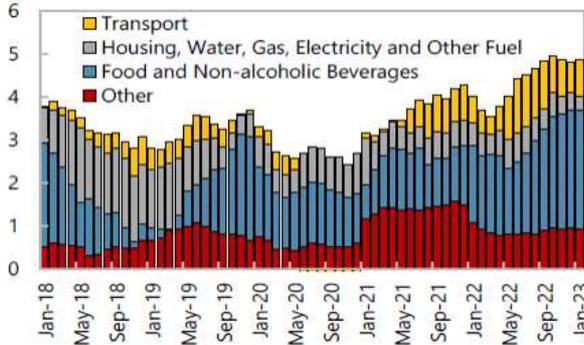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뭄과 주변국들의 식량 부족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산정 바스켓 품목의 대부분의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중앙은행의 목표치 상한선(5%) 이내인 4.4%로 억제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2023년에는 하반기의 국제유가 상승 전망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험, 가뭄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방 압력을 받고 있음.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7월 11일(현지시각) 발표한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과 비회원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의 감산 결정으로 세계 원유 재고가 향후 15개월 동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이 올해 말 81달러를 돌파하여 내년에는 평균 83.51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2023년 하반기 중 세계 소비재 가격의 추가적인 조정, 식량 수확 개선, 신중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202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대 초반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기준금리는 현재 5%로 향후 인상/인하 예측은 기관마다 의견이 엇갈림

- 2023년 1월 31일 탄자니아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중앙은행은 경제 전반에 걸친 유동성 감소 추세를 감안하고, 탄자니아 실링 가치의 방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5%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5%의 기준금리는 최근 10년 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4~17년에는 16%에 육박하였으나 2020년 이후 5%를 유지하고 있음.
- FitchSolutions는 2023년 하반기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6%로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EIU는 2024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5%로 낮추고 2026~27년 4%로 낮출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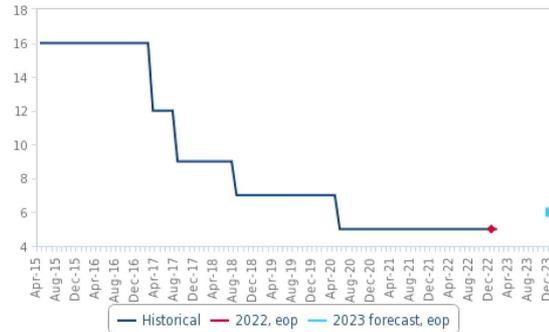
국내경제

[그림 3] 탄자니아 물가상승률과 산업별 기여도(2018~22년)
(단위: %)



자료: IMF

[그림 4] 탄자니아 기준금리 추이(2015~22년)
(단위: %)



자료: FitchSolutions

공적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 등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사회적 지출은 유지

- **(2022년 재정지출)** 탄자니아는 공적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인프라를 포함한 교육, 보건 등의 사회개발 투자를 적극 실시함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 활성화로 인한 내수 증가(2021년 23.7조 실링→ 2022년 27.5조 실링, IMF 기준)에도 불구하고 2022년 GDP 대비 -3.3%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가 2022년 연료 보조금 및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한 결과 재정적자가 심화되었음.
- **(2023/24회계년도 예산안)** 탄자니아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3/24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예산은 전년의 41조 4,800억 실링(약 178억 달러)에서 44조 3,000억 실링(약 190억 달러)로 약 7% 증액됨. 재원은 국내 조세수입 71%, 국내 차입 12%, 해외원조 및 양허성 차관 12%, 비양허성 차관 5%로 조달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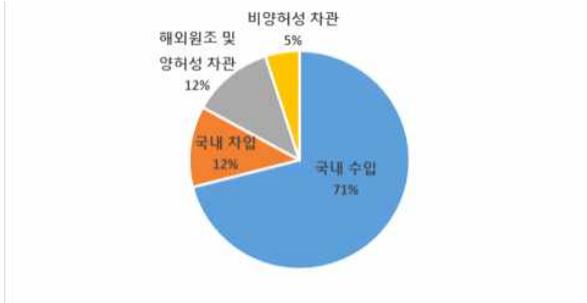
- 조세징수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고 우선적인 사회적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이 재조정되었음. 2023년 상반기 재정수입 부족분을 반영한 결과 현재 회계년도 재정수입 전망이 GDP의 0.5% 포인트 하향 조정되었음.
- 전체 예산 중 경상지출은 2022/23회계년도 26조 4,750억 실링(113억 8,425억 달러)에서 29조 2,000억 실링(125억 5600만 달러)으로 약 10.4% 증가함.

- 경상지출 중 정부부채 상환에 전년 대비 12.9% 증가한 12조 7,700억 실링(54억 달러), 공공 부문 임금에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0조 8,820억 실링(46억 달러)이 배정됨. 한편, 5조 5,780억 실링(24억 달러)은 보건 및 교육 서비스 부문, 2024년 지방정부 선거 준비 및 새로운 국가 개발전략 및 가이드라인인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50' 준비에 배정될 예정임.
- 개발지출은 전년 대비 1% 증액된 15조 1,000억 실링(64억 9,300만 달러)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의 약 34%를 차지함.

- 탄자니아 Nechmba 재무부 장관은 경상지출 부문의 증가에 비해 개발지출에 배정된 예산의 증가폭이 작은 것은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개발 프로젝트들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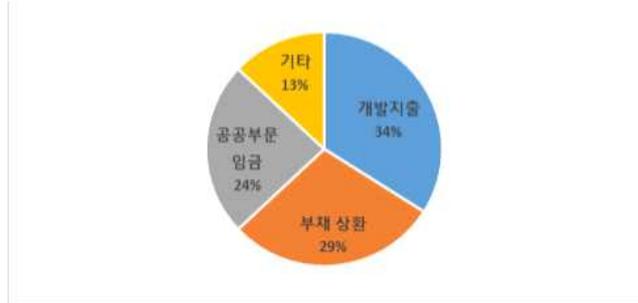
국내경제

[그림 5] 탄자니아 정부의 2023/24회계년도 예산안



자료: 탄자니아 재무부 발표 참고 저자 제작

[그림 6] 탄자니아 정부의 2023/24회계년도 지출안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상수지	-1,512	-1,122	-2,374	-5,397	-4,387
경상수지/GDP	-2.5	-1.7	-3.4	-7.0	-5.1
상품수지	-3,415	-1,517	-3,247	-6,985	-6,108
상품수출	5,378	6,372	6,756	7,224	7,403
상품수입	8,793	7,889	10,003	14,209	13,511
외환보유액	5,476	4,673	5,759	5,093	5,248
총외채	24,164	25,545	28,490	30,987	33,791
총외채잔액/GDP	39.8	39.0	40.7	40.2	39.6
D.S.R.	14.6	18.9	18.3	16.7	16.6

자료: IMF, EIU

관광업의 부분 회복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흑자 개선을 자본재 및 정제유 수입 증가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의 대폭 증가가 상쇄하여 2022년 경상수지 적자폭은 전년 대비 확대 추정

- 코로나 19 팬데믹 관련 글로벌 이동제한 조치 완화 [그림 7] 탄자니아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2019~2023.01)

및 백신 보급 확대 등에 따른 관광객 유입 증가로 2021년 서비스수지 흑자는 전년(8.9억 달러) 대비 개선된 14.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자본재 수입액(31.4억 달러 → 38.4억 달러) 및 정제유 수입액(12.8억 달러 → 20.8억 달러)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15.2억 달러 → -33억 달러)되어 2021년 GDP 대비 -3.4%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



자료: IMF

- 2022년에는 공산품 및 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자본재 수요 증가와 고유가에 따른 정제유 수입가격 상승으로 전년도의 자본재 및 정제유 수입액 증가 추세가 이어진 결과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된 반면, 관광업의 회복 속도는 예상에 미치지 못해 GDP 대비 -7.0%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외화획득원인 관광업이 2021년 부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은 관광업의 본격적인 회복을 저해하였음.
- 관광업 수출액 규모는 2019년 26억 달러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7억 달러로 급감한 후 2021년 1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대외거래

2023년에는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탄자니아 실링 가치에 대한 하방 압력이 줄어들 전망

- Fitch Solutions는 탄자니아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2022년 6.9%에서 2023년에는 4.6%로 줄어들 것이며, 2024년에는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4.2%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Fitch Solutions는 탄자니아 실링의 가치가 2023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연평균 환율은 미 달러당 2,346실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경상수지 적자 감소로 통화가치에 대한 하방 압력이 줄어들에 따라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외환을 보유할 것이라고 예측함.
- 탄자니아 통화정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세입은 조세징수 관리 개선, 납세자의 납세 준수, 지속적인 경제활동 회복에 힘입어 대체로 목표에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함. 반면, 코로나19의 영향과 러-우 사태 지속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다소 확대됐으나, 외환보유액은 4개월 치의 수입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힘. 위원회는 글로벌 및 국내 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탄자니아 주요 상품/서비스 수출·수입 비교(2021~22년)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구분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액
상품수출	6,755.6	7,223.7	468
전통품목	627.9	766.5	139
비전통품목	5,763.0	6,058.4	295
광물(금)	2,743.1	2,836.7	94
미기록수출	364.8	398.8	34
서비스수출	3,117.7	4,776.5	1,659
운송업	1,558.1	1,853.6	295
관광업	1,310.3	2,560.7	1,250
기타	249.3	362.2	113

상품 및 서비스 수입			
구분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액
상품수입	10,003.4	14,245.0	4,242
자본재	3,836.0	5,201.4	1,365
중간재	3,250.5	5,103.4	1,853
정제유	2,084.4	3,533.5	1,449
소비재	2,914.7	3,938.0	1,023
기타	2.2	2.2	0
서비스수출	1,607.0	2,465.4	858
운송업	806.4	1,378.4	572
관광업	196.2	357.5	161
기타	604.4	729.5	125

자료: Bank of Tanzania (※ 산정 기준 및 적용시점 환율 등의 차이로 IMF 수치와 차이 존재)

외채상환능력

만성적인 경상·재정수지 적자로 외채상환 부담은 높은 수준을 기록 중

- 탄자니아는 파리클럽, IMF, 세계은행 주도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외채 탕감을 받은 바 있으나,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분을 해외차입으로 보전함에 따라 외채잔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01년 고채무저소득국 이니셔티브(HIPC Initiative)¹⁾에 따라 30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은 데 이어 2006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DRI Initiative)²⁾에 따라 37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음.

2021년 9월 IMF는 탄자니아의 외채위험을 낮음(Low)에서 보통(Moderate)으로 상향

- IMF는 2021년 8월 20일자 탄자니아 경제에 대한 평가보고서(Staff Report for the Article IV Consultation, No.2021-213)의 외채지속가능성 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DSA) 챕터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각국의 이동제한 또는 봉쇄 조치의 여파로 관광 부문의 수익이 급감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악화되며 외채원리금 상환능력이 저하된 점을 주요 사유로 들어 탄자니아의 외채곤경위험(Risk of external debt distress)을 '낮음'(Low)에서 '보통'(Moderate)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2022년 7월 5일자(No.2022-269) 및 2023년 4월 4일자(No.2023-153) 평가보고서의 DSA에서도 계속 '보통'을 유지하고 있음.

* IMF는 탄자니아의 채무곤경종합위험(Overall risk of debt distress)도 2021년부터 3년 연속 '보통'으로 평가함.

- IMF는 탄자니아에 대해 재정수입 개선 노력과 더불어 다자기구의 자금 지원 및 양허성 차관을 최대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실제로 이후 탄자니아 공적외채에서 다자기구 및 공적 양자간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68.2%에서 2022년 말 기준 71.7%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³⁾
- 한편, IMF는 2021년 9월 탄자니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코자 탄자니아에 Rapid Credit Facility(RCF)⁴⁾ 및 Rapid Financing Instrument(RFI)⁵⁾를 통한 총 5억 6,725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2022년 7월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영향을 받은 탄자니아 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Extended Credit Facility(ECF)⁶⁾를 통해 10억 4,64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승인함. 이후 2023년 4월 24일 3년 연장 신용대출 검토를 승인하여 약 1억 5,30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즉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탄자니아 앞 승인된 10억 4,000만 달러의 IMF 대출 약정에 대한 총 지출액은 약 3억 500만 달러에 이룸. IMF의 자금 지원은 다른 국제금융기구 등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어 탄자니아의 외채상환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 HIPC Initiative: 고채무저소득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39개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리스케줄링과 탕감을 실시하는 채무구제 프로그램
2)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HIPC Initiative를 성공적으로 졸업(Exit)한 국가에 대해 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4곳이 채무 전체를 탕감하는 프로그램
3) IMF Staff Report for the Article IV Consultation, Tanzania (No.2022-269 & No.2023-153), Table 1. Tanzania: Decomposition of Public Debt and Debt Service by Creditor.
4) 저소득국의 긴급한 국제수지 상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무이자 양허성 차관 지원제도(상환기간은 5년 5개월~10년).
5) 자연재해나 상품 국제가격 충격 등으로 국제수지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제도로, 수원국의 국공채를 매입하는 형태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상환기간은 3년 3개월~5년).
6) 국제수지 적자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국을 지원하는 양허성 차관 제도(최초 대출기간은 3~5년).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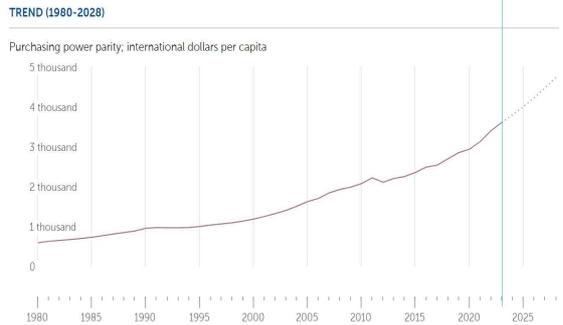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외충격에 취약

- 탄자니아 경제는 2013~22년 중 평균 6.2%의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2020~22년 평균 4.9%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발표한 2022년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3,600달러로, 192개국 가운데 161위에 불과함. Moody's는 탄자니아의 낮은 소득수준이 외부로부터의 경제충격에 대응할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함.

※ PPP 기준 1인당 GDP는 나라마다 다른 물가나 환율 수준을 반영해 해당 국가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임.

[그림 8] 탄자니아의 개인 실질구매력 수준(1980~2025)

(단위: 천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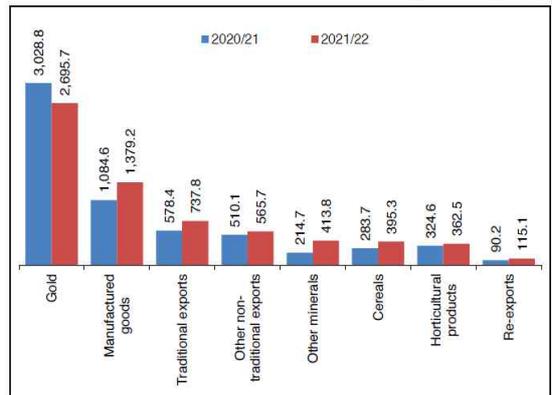
자료: IMF

단일 상품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및 기후조건 변동에 취약한 산업구조

- 2021/22년 탄자니아의 상품수출은 크게 커피, 캐슈넛, 담배 등으로 구성된 전통적 수출 부문(상품수출의 11%)과 광물 및 제조품으로 구성된 비전통적 수출 부문(상품수출의 89%)으로 구분됨.
- 광물은 비전통적 수출 부문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은 전체 상품수출의 40%이자 및 광물 수출의 80%를 점유하여 금 국제가격 변동이 상품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한편, 기후조건 변동에 취약한 농업 부문은 탄자니아 GDP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의 기후 변화 및 증가하는 수자원 수요 등으로 주요 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어 동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탄자니아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9] 탄자니아 상품수출 구성

(단위: 백만 USD)



자료: Bank of Tanzania

기술인력 육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 필요

- 탄자니아의 제조업은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단순 제조업 분야(농산물, 가죽, 섬유, 목재 등)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임.
- 탄자니아 인력 중 높은 숙련도의 기술인력 비중은 3%(중소득 국가 평균 10%)에 불과하고, 낮은 숙련도의 인력 비중이 80% 이상(중소득 국가 평균 50%대)으로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인력 육성이 시급한 과제임.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탄자니아의 기술인력 숙련도 수준은 141개국 중 126위에 그쳤음.

성장잠재력

금, 니켈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보유

- 탄자니아는 금, 다이아몬드, 니켈 등 경제적 가치가 큰 다양한 광물들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상품수출의 43%를 차지하는 금의 확인매장량은 4,500만 온스로 탄자니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말리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4번째로 많은 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광물 탐사가 이루어진 곳이 국토 면적의 20%에 불과하여 향후 추가 채굴 가능성이 큰 편임.
-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이 매장(152만 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Kabanga 광산 개발사업도 추진 중임. 탄자니아는 영국 광산 회사(LZ Nickel Ltd)와 2021년 1월 니켈 채굴 사업계약을 체결, 동 사업을 통해 향후 연평균 6.64억 달러의 매출을 전망함.
- 탄자니아는 천연가스를 주요 수출자원으로 인식하여 정부 주도의 개발 노력도 강화하고 있음.
- 탄자니아의 전체 전력 생산 중 천연가스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48%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음. 탄자니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6조 m³로 추정되는데, 송고 송고(Songo Songo), 음나지베이(Mnaza Bay)와 북부 킬리와니(Kiliwani North)의 3개 지역에만 약 1,100억 m³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탄자니아 LNG 프로젝트는 탄자니아의 세 번째 국가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프로젝트들 중 하나로서, 이 프로젝트에는 심해저 유전의 유정, 천연가스를 육상으로 운반할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LNG 플랜트 및 적재시설 건설 등이 포함될 것임.
- IMF는 동 프로젝트의 총투자액을 약 327억 달러(현재 탄자니아 GDP의 40% 이상)로 추정했으며, 향후 10년 중에 실행될 것으로 예상함.
- 2022년 4월 탄자니아는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인 ExxonMobil, Equinor, Shell로부터 3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LNG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를 확보하였음. Standard Bank Group의 연구에 따르면, 위 3사들이 계획한 탄자니아 LNG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GDP에 연간 최소 70억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기대됨.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및 연관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 잠재력

- 관광업은 탄자니아 GDP의 17% 이상, 외화 수입(收入)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객이 2019년 15만 명에서 2020년 6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2020년 이후 관광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7곳*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편임.

* 세렝게티, 킬리만자로, 응고롱고로, 셀루스 동물보호구역, 잔지바르 석조도시, 콘도아 암석화 유적, 킬와키시와니 및 송공 음나라 유적

성장잠재력

인도양에 인접한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내륙국의 무역 허브

- 탄자니아는 인도양과 접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부룬디,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등 6개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 아프리카 중부의 물류거점이 되고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내 2번째 규모의 항만이자 인도양에 인접한 다레살람항을 포함하여 바가모요항, 탕가항을 확장·개발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임.

* East African Community: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7개국으로 구성(2022년 7월 기준)

- 아울러 총 연장 2,500km의 표준궤 철도(SGR; Standard Gauge Railway) 건설을 진행 중으로, 건설 완료 시 르완다,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등 인접국으로의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 동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자니아의 가장 큰 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3.5억 달러가 투입된 1단계 다레살람-모로고로 구간은 2022년 12월 완공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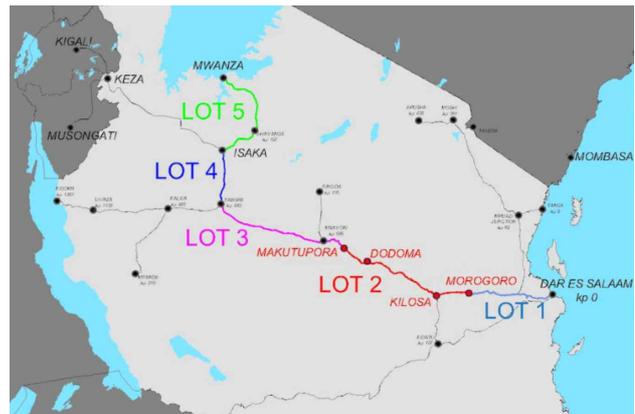
* 1단계(202km): 다레살람-모로고로, 2단계(348km): 모로고로-마쿠포라, 3단계(294km): 마쿠포라-타보라, 4단계(130km): 타보라-이사카, 5단계(341km): 이사카-음완자

[그림 10] 탄자니아의 지리적 위치



자료: Google Map

[그림 11] 탄자니아의 단계별(LOT) SGR 노선



자료: Engineering News-Record(사진 제공: Yapi Merkezi)

정책성과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개발 중심의 경기부양책 지속

- 인프라 구축은 현재 탄자니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하산 대통령은 마구폴리 前대통령이 추진했던 인프라 개발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대표적인 인프라 사업으로 ①표준궤 철도 건설, ②줄리어스 니에레레 수력발전 댐 건설, ③우간다-탄자니아를 잇는 동아프리카 송유관 건설, ④도도마 Msalato 국제공항 건설 및 기존 공항 확대/현대화 사업 등이 있으며, 탄자니아 정부는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국가경제계획 추진 결과 2020년 하위 중소득국으로의 진입에 성공

- 탄자니아 정부는 1999년 수립된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25(The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 아래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이행 중임.
-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25」는 202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GNI) 2천 달러의 중소득국(Middle Income Country) 진입을 목표로 2000년에 발표된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①경제성장 및 산업화, ②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변화, ③사업 및 기업개발환경 개선 시행, ④효율성 강화의 총 4개 목표로 구성됨.
- 2011년부터 5개년씩 총 3단계로 나누어 세부 목표를 설정했으며, 현재 세 번째 단계(2021~25년)에 진입해 있음.
- 한편, 탄자니아는 2019년 1인당 GNI 1,080달러를 기록하며 하위 중소득국가 진입 기준인 1,036달러를 넘겨 당초 목표를 5년 앞당겨 2020년 7월 1일 저소득국에서 하위 중소득국으로의 진입(세계은행 기준)에 성공하였음.
- 「3차 5개년 개발계획(Five Years Development Plan '21/'22~'25/'26, FYDP III)」은 탄자니아 경제의 경쟁력 확보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목표로는 ①연간 경제성장률을 2021년 6%에서 2026년까지 평균 8%로 제고, ②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율을 2021/22회계년도의 15.9%에서 2025/26회계년도까지 16.8%로 제고, ③소비자물가상승률은 3~5%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④월평균 상품 및 서비스 수입액의 4개월분 이상을 충족하는 규모의 외환보유액 유지, ⑤2021~26년 중 민간 부문에서 8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임.
- 2022/23회계년도의 구체적인 우선 추진 분야는 ①경쟁력 및 참여형 경제 활성화, ②산업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③비즈니스 촉진 및 투자, ④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등임.

정책성과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 시범 운영 시행으로 교역 증대 및 경제성장 기대

- 2021년 9월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 비준 동의안이 탄자니아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탄자니아는 2022년 1월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 AUC)에 비준서를 제출함.
 - ※ 2022년 6월 말 기준 아프리카연합 55개 회원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이 중 탄자니아를 포함한 43개국이 AUC에 비준서를 제출함.
- AfCFTA는 아프리카 통합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주요 프로젝트로 인구 12억 명, GDP 약 3조 달러 규모의 경제 블록이며, 단일시장 규모로는 WTO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임.
- 2022년 10월 7일 대륙 전체 본격 적용을 앞두고 AfCFTA 무역의 실질적 실행 가능성 및 참가국들의 관세 및 세입 당국이 수출입 처리 역량 확인을 위해 시범 운영(Guided Trade Initiative)한다고 공식 발표했음. 2021년 1월 1일 AfCFTA의 공식 시행이 발표되었지만 원산지 규정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실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무역사례가 발생하기는 어려워 이니셔티브의 형태로 접근함.
- 탄자니아 외교부는 새로운 단일 시장이 형성되면 현재 탄자니아 수출량의 1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역내 교역량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동아프리카 허브로서의 탄자니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음.
- 반면 케냐,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이미 발전된 물류 유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들과 경쟁할 경우 투자 유치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최하위권이나, 적극적인 사회개발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 기대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탄자니아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141개국 중 117위로 하위권에 위치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인프라(121위), 정보통신기술 도입 수준(133위), 숙련도(126위), 혁신역량(123위) 분야가 특히 열위함.
 - ※ 주변국 글로벌 경쟁력 순위: 케냐 95위, 가나 111위, 에티오피아 126위
- 탄자니아는 주요 인프라를 포함하여 교육, 보건 등의 사회개발 투자에 2021/22회계연도 예산의 38%를 집행한 데 이어, 2022/23회계연도에도 예산의 36%를 편성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지수(Africa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ex, AIDI) 2020 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AIDI 순위와 점수*는 ICT 및 상하수도 부문의 개선에 힘입어 조사 대상 54개국 중 2018년 43위(12.543점), 2019년 41위(14.110점), 2020년 40위(14.891점)로 점차 상승하고 있음.

* 최하 0점, 최고 100점

정치안정

하산 대통령 행정부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 중이나, 제도적 변화를 위해 더 많은 시간 필요

- 2020년 10월 재선에 성공한 존 마구풀리 대통령이 2021년 3월 오랜 지병으로 서거함에 따라 잔지바르 출신 사미아 솔루후 하산 부통령이 탄자니아 헌법에 따라 평화롭게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탄자니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당 후보가 되어 당선될 것으로 예측됨(EIU).
- FitchSolutions는 '정책 연속성'과 '정책 수립 과정'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함. 현재 집권 여당(CCM: Chama Cha Mapinduzi)이 의회 의석의 8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하산 대통령 행정부는 故마구풀리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2025년 10월까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하산 대통령 치하의 새 행정부는 언론과 야당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국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부패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회안정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은 편이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협 가능성 존재

- 탄자니아는 전통적으로 동아프리카 역내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종종 지역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은 편이나, 남쪽 국경에 인접한 모잠비크에 존재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의 테러 위협 가능성이 있음.
- 모잠비크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IS에 충성을 맹세한 바 있으며, 이들은 2020년 10월 탄자니아의 경찰서를 공격하고 주민들을 살해하는 등 탄자니아에도 위협이 되었음. 다만, IHS Markit은 탄자니아 정부의 면밀한 감시 속에 이들이 탄자니아에 심각한 테러 위협을 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소규모 지하디스트 단체들은 특히 므트와라, 프와니, 탕가 지역에서 신병 훈련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저항군과 단독 행동자들은 지역의 당 지도자들과 경찰관들에게 소형 무기 공격 및 해안 지역과 도심에서 현금 수송 강도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됨.

종족·종교 간 큰 갈등이나 시위 없이 사회안정 유지

- 탄자니아는 다양한 종족* 및 종교**가 복합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두드러진 종족·종교 간 갈등이 없어 아프리카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국가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130여 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된 아프리카인 99%, 기타 1%

** 본토: 이슬람교(35%), 토속종교(35%), 기독교(30%) / 잔지바르: 이슬람교(99%)

- 정부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회적 지출을 늘리고 연료 보조금을 도입했으며, 야당에 점차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잔지바르 섬은 잔지바르의 국가적 과소대표에 대한 인식에 의해 역사적으로 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지만, 잔지바르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에서는 과거보다 잘 대표되고 있는 편임.

사회안정

Moody's는 탄자니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4등급으로 평가

- Moody's*는 환경위험, 사회위험, 지배구조위험 등 모든 요인이 탄자니아의 성장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탄자니아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기후조건에 취약한 농업 및 수력발전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탄자니아는 증가하고 있는 물 수요와 반복되는 가뭄 등으로 인해 환경위험에 부정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아울러 최근의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 변화는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탄자니아의 수자원 활용도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Environmental) 영향을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함.
- **(사회)** 높은 빈곤 수준과 소득 불균형, 의료·복지 및 교육을 포함한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탄자니아의 사회위험은 높은 수준임. 또한, 높은 수준의 영양실조 및 미취학 인구 규모는 인적자본의 질적 개선을 저해하여 탄자니아의 성장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사회(Social) 영향을 5등급(Very 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탄자니아의 정책에 관한 예측 불가능성은 정책의 효과성과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고 분석하며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을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함.

국제관계

하산 대통령 취임 후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 하산 대통령은 부통령 재임 시절에 마구폴리 前대통령을 대신하여 유엔, 남부 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등이 개최한 국제회의에 다수 참석하였으며, 여러 외교행사를 주관한 점 등에 비추어 취임 당시부터 노련한 외교수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음.
- 실제로 하산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제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및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와의 협력 강화, AfCFTA 비준 등 국제적 위신의 회복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탄자니아는 내륙과 인접국을 연결하는 표준궤 철도 건설, 우간다-탄자니아를 잇는 동아프리카 송유관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역내 주요 경쟁국인 케냐와 각 부문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계 정상화에 합의(2021년 5월)하는 등 역내 통합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임.

서방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경제협력을 지속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도 협력 강화

- 탄자니아는 국가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의 주요 재원을 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중요시함.
- 세계은행은 탄자니아에 2022년 1,650백만 달러, 2023.1~6월까지 1,635백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IMF는 2022년 115백만 달러, 2023.1~6월까지 113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탄자니아 앞 재정·기술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
- 한편,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⁷⁾과 같은 무역협정 등을 통해 미국, EU 등 전통적 협력국과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탄자니아는 중국의 아프리카 주요 '일대일로' 협력국으로서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⁸⁾을 기반으로 탄자니아와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탄자니아와의 관계를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로 격상함.
- 중국은 탄자니아-잠비아 철도 건설, 국립 경기장, 최대 규모의 항구, 동아프리카 최장 다리 등의 건설을 담당하였으며, 최근에는 바가모요 항구, 표준궤 철도, 석탄 화력발전소,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 외에 개발원조를 통해 상수도, 공공의료, 교육 부문 등을 지원하고 있음.

7)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의 무관세 접근을 허용하는 특혜무역조치임(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은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해 구성된 다자간 대화기구로, 2000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래 3년마다 열리고 있음(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

- 2023년 3월 말 기준 탄자니아 앞 OECD 회원국 ECA의 지원잔액은 2,369.7백만 달러(단기 157.9백만 달러, 중장기 2,211.8백만 달러)이며, 이 중 연체잔액은 3.4%에 해당하는 81백만 달러임. 상환 대상 원리금 잔액 일부를 연체 중이나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액이 없고, 재조정된 상환 스케줄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 중으로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23.06)	6등급 (2022.07)
Moody's	B2 (2022.10)	B2 (2020.08)
Fitch	B+ (2023.06)	n/a

Moody's는 2020년 8월 탄자니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 Fitch는 2023년 6월 처음으로 탄자니아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 OECD는 2005년 이후 탄자니아의 국가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20년 8월 열악한 거버넌스로 인한 국가신용위험 증가로 탄자니아의 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특히, 정부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은 탄자니아에 대한 외국인투자 매력도와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부담 및 유동성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
- Fitch는 2023년 6월 처음으로 탄자니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 결과 안정적인 부채 상황, GDP와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의 양호한 수준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중앙은행의 낮은 독립성, 부실한 공공재정 관리,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감소 등의 단점이 존재함을 지적하여 B+ 등급을 부여하였음.

- 탄자니아 경제는 농업, 서비스업, 제조업 및 건설업 등 산업 전반의 고른 성장을 통해 2022년 4.7%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에도 서비스업과 인프라 사업 투자에 힘입어 5%대 초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대형 인프라 투자,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출 부담이 가중되어 2022년 GDP 대비 -3.3%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경상수지 적자는 2022년 GDP의 6.9%에서 2023년 4.6%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는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에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Fitch Solutions).
-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로 인한 필요 재원을 대외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외채부담이 높은 편이나, IMF, 세계은행 등 다자기구들로부터 꾸준한 차입을 받고 있음.